

18) 궁 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활쏘기를 무인들뿐만 아니라 문인을 비롯하여 승려나 여성들도 즐겨하였다. 활을 쏘는 사람은 고상한 품격과 평정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동작에서도 절도와 예의를 지켜야 했으므로, 인격을 닦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종목이었다. 전통적으로 활쏘기는 각 사정(射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실시된 궁술대회를 편사(便射)라고 한다. 편사는 5인 이상으로 조직된 여러 단체나 각지의 궁수가 자기 사정을 대표하여 서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1922년 7월 2일 조선궁사협회가 창립되었으나 특수계급의 인사들간에 행해져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고, 오늘날과 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해방 이후부터였다. 궁도는 1947년 제28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후 1971년 제52회 체전부터는 양궁경기가 궁도의 일부로 추가되었으며, 1983년 제64회 체전부터는 양궁경기를 궁도경기에서 분리하여 독립 경기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순천의 궁도는 환선정이 그 무대였다. 환선정은 1543년(중종 38)에 부사 심통원이 동천 서편(현 동외동)에 창건하여 무술도장과 정사를 논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왜병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그후 1612년(광해군 4)에 유순익 부사가 중건한 이후 1761년(영조 37)에 구수국 부사가, 1790년(정조 14)에 윤광한 부사가, 1869년(고종 6)에 이범진 부사가 중수한, 국내에서 역사가 오래된 전국 사대정(서울 : 황학정, 전주 : 천양정, 순천 : 환선정, 평양 : 연광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제 때 환선정 부지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1935년에 몰수당하고(매각 처분하여 심상소학교 시설비에 충당함) 건물만 서 있다가 1962년 큰 홍수로 유실되었으나 지금 현판만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935년에 환선정 부지가 몰수당함으로써 부득이 지역유지들의 의연금으로 조곡동 278-2번지 죽도봉공원에 정을 이설하고 궁도인의 심신수련 도장으로 삼아오다가, 주위 민가의 밀집으로 인하여 1984년에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현 위치(조곡동 278-25번지)에 사태(射臺)와 관혁장을 이설하였다. 1988년에 시 당국에서 옛 환선정 원형대로 복원, 건립하였다.

주요 수상업적을 보면 1989년 8월 하동 하상정 주최 제42회 영·호남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비롯, 1991년 10월 고흥 봉황정 주최 제40회 전남동부 7개정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1992년 5월 여수 충무정 주최 전남제전 전국남녀궁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1992년 9월 경호정 주최 제49회 영·호남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 1994년도 전남도민체전에서 단체전 2위, 1995년 전남도민체전에서 단체전 2위에 입상하였다.

역대 사두(射頭)와 부사두는 다음 표와 같다.

대 수	사 두	부사두
90	윤기술(尹箕術)	박채복(朴采福)
91	박채복	김종현(金種鉉)
92	김동원(金銅元)	김동원 · 김영준(金榮俊)
93	신병식(申柄植)	조영구(趙泳九)
94	김동원	김동원 · 김영준
95	허진명(許振明)	박채복 · 박치근(朴致根)
96	김대흥(金大興)	양남교(梁南教)
97	이정우(李井右)	양남교
98	양남교	임종오(林種吾)
99	양남교	김동일(金東日)

현재 사원수는 모두 43명으로 남무사 41명, 여무사가 2명이다. 최고령자는 83세 할아버지이고 최연소자는 21세의 대학생이다.

